

컴퓨터공학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2개 분야 최고 평가 받아



▶컴퓨터공학부 관계자들이 상장과 상패를 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5개 분야별 총 45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컴퓨터공학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융·복합 교육과정 및 비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대는 2016년 건축(시공) 분야, 2015년 식품·게임·미디어 3개 분야, 2014년 환경 분야, 2013년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017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하는 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4년에 걸친 3주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체 18개 분야를 합산하면 ‘최우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대학이 동서대다. 동서대는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부서장이 분야별 핵심 역량, 관련 교과목 등을 제안하고 교육과정의 일치도를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의 지원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협조로 대교협이 08년부터 주관하여 변화하는 산업인력 수요에 부합하게 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학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교협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석유화학, 화장품 등 5개 분야에서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75개 대학의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카카오, LG전자, COSON 등 39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 2027개 기업이 참여했다.

평가는 산업계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평가 분야 관련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기업체 부서장의 직원 직무역량 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동서대·가천대·건국대·경남대·경성대·경일대·광주대·동의대·서강대·선문대·숙명여대·송실

대·우석대·중앙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보통신 분야의 최우수 대학은 동서대·광운대·동국대·동신대·동의대·중앙대 등 6개교다.

한글과 컴퓨터, 카카오 등 평가에 참여한 산업계 인사들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산업인력 양성 시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은 응용능력 함양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현장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을 거쳐 성과 점검 과정에 이르기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향후 신산업분야 요구분석 및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적시성 있는 산업계 니즈(Needs)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두 트랙(Two track)요구분석으로 대학 교육과정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계 인사가 직접 참여한 요구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과별 맞춤형 개선방향을 산업발전 트렌드 공유를 위해 더욱 생생한 면대면 컨설팅이 강화·확대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계-대학 간 소통 채널을 구축·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대수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산업계에서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일관된 교과과정을 따르기보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동서대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SW교육과정 전체흐름도와 교육목표별 과목의 선후수체계도를 설명하는 SW교육과정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훈 기자, 김다경 수습기자
nkh0301@gmail.com

대학암호동아리 지원 사업 선정 연간 300만원의 정부지원 혜택 받아



▶동서대 암호동아리(CNSL)교수와 학생들.

최근 동서대 암호동아리 ‘CNSL’이 패거리를 이뤄냈다.

지난 달 8일 동서대학교 암호·네트워크 보안 연구회인 CNSL(대표 김영서·컴퓨터공학부·3)이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과 한국암호포럼(의장 류재철)이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2018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CNSL’은 연간 300만원의 정부지원과 한국암호포럼 주관 무료 교육, 세미나 개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연말 활동 평가 후 우수동아리는 상장과 격려금을 받으며, 최우수 동아리는 2019년 동아리 지원을 받는다.

CNSL(Cryptography & Network Security Laboratory)은 암호 및 네트워크 보안 연구회로 센서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리버스 엔지니어링, 부채널 공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응용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12명의 학부생, 5명의 석·박사 등 총 17명이 소속돼 있다.

KISA는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한국암호포럼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암호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미래 우수 암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대학교 외에 올해 선정된 대학 암호동아리는 지난해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던 서울대학교 ‘SNUCRYPTO’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KoRec’ ▲공주대학교 ‘KNU-SEC’ ▲순천향대학교 ‘Hedgehog’ 및 ‘LOGOS’ ▲한양대학교 ‘HUCC’ 및 ‘QCC’ 등으로 동서대 포함 총 8개 대학 암호동아리가 선정됐다.

이완식 KISA 정보보호산업부장은 “대학 암호동아리가 암호분야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양자내성 암호 개발 및 암호모듈검증(KCMVP) 등을 통해 미래암호기술을 선도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실현하는 데 KISA가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맹세



▶간호학과 학생들이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동서대학교 뉴미디어학과 2층 소향아트홀에서 간호학과와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동서대학교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 전 마음가짐과 전문 간호직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식에서 간호학과 3학년생 65명은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으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계열 학부장, 같은 학부 교수와 타 학부 교수, 학부모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다. 선서식은 ▲영나이팅게일 입장(졸업생 심유빈·정윤식)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총장 격려사 ▲학부모 격려사(학부모 김기정) ▲축사(황순연 부학장 간호사회장)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 선서생들은 촛불 점화를 진행했다. 촛불점화를 마친 모든 선서생들은 선서 대표를 필두로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외친 후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읽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모두 읽은 후 장재국 총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장재국 총장은 참석한 많은 내빈들에게 환영인사를 건넸다. 선서식을 열기위해 준

비하고 참여한 선서생들과 교수들에게도 축하와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부모 격려사가 진행됐다. 이후 황순연 부학장 간호사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 공연에서 간호학과 1학년 36명은 선배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서’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2곡을 합창하고 이어서 ‘나는 나비’ 수화 공연을 했다. 공연이 끝난 다음 폐회사가 진행됐다. 폐회사가 끝난 후 선서생들과 내빈들의 기념 촬영 하며 행사를 마쳤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LINC+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 발족

대학 지역사회 개선에 팔 걷어붙여



▶지역사회공헌 연구회 발족식 및 지표개발 세미나 단체사진.

▷사진출처 : 한라일보

지난 4월 총 1박2일간 제주도 라마다시 키 호텔에서 6개 대학(계명대, 대전대, 동국대, 동서대, 제주대, 호남대)의 LINC+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 발족식과 지표 개발 세미나를 가졌다.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는 LINC+사업의 성과와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 추진 및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됐다.

발족식에서는 초대회장을 맡은 김형우 동서대 단장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는 지역 사회와 문화를 위한 대학 사회 전체의 고민을 지역 대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선도하는 연구회가 될 것이다.”라

며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철웅 제주대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LINC+사업 전체성과가 지역사회, 지역 문화에 기여하는 거시적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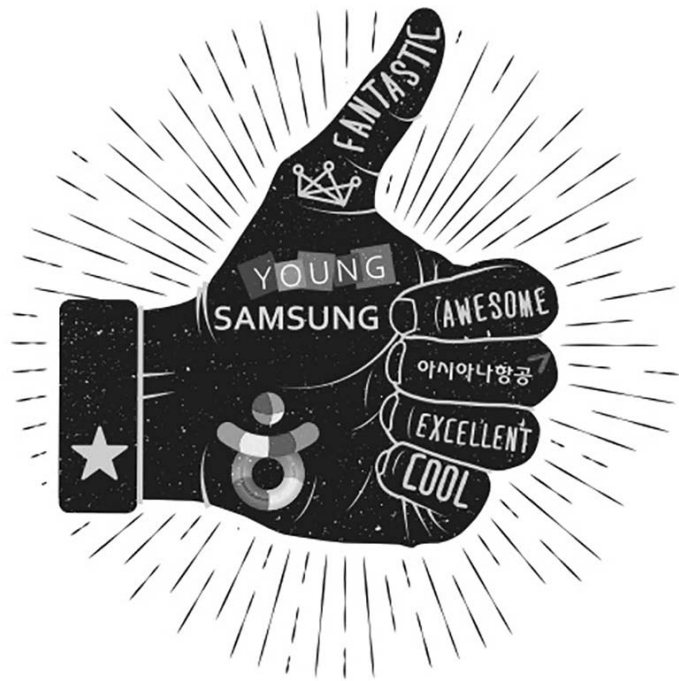
이 날 발족식 이후 6개 대학 사업단을 대상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 방안’,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 협력 사례 : 따뜻한 서울 만들기’ 특강이 진행되었고, 연구회 담당자들의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는 종료됐다.

6개 대학 사업단은 향후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었던 ‘2017 DSU LINC+ FAIR’과 같은 캠퍼스 디자인 FA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대학 사업단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 및 지역 특성상 반영한 ESI(사회경제적 지수) 공동 개발 및 적용, 확산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측정하고 개선하여 LINC+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경훈 기자, 지은서 수습기자
nkh0301@gmail.com

미리 알아보는 여름방학 대외활동 꿀 정보!



▷사진출처 : 캠퍼스 잡 앤 조이

꿀팁 첫 번째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대외활동을 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선택이 아닌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반강제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실제로도 불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본인의 흥미나 적성 그리고 관심사에 잘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자칫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 경험이 아닌 그저 스펙만 쌓는 결과를 낳게 된다.

꿀팁 두 번째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대외활동 지원할 때,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 이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다.' 등 이유였지만 지금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본인이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깊게 고민한다면 더욱 즐거운 여름방학 대외활동이 되지 않을까.

꿀팁 세 번째

한 가지 활동만을 즐겨라

방학 기간 내내 대외활동에 시간 쫓기는 대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막상 이후에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뒤죽박죽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대외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점점 다가오는 중간고사지만, 곧 1학기 종강임을 뜻하기도 한다. 이제는 여름방학이라고 마냥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SPEC의 질을 더욱 높이는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대외활동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그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들도 도전하면서 더 멋진 동서대 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여름방학 대외활동 및 서포터즈 모집정보를 알차게 찾아보았으니 함께 알아보자!

제 11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모집

•모집대상 : 대학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활동기간 중 대외활동 중복 불가)

•모집기간

: 2018. 04. 30(월)~06. 05(화) 17시

•우대조건 : SNS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활동 경험자, 대외활동 경험자

•활동기간

: 2018. 06. 29(금)~08. 30(목)

•지원방법 :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2차 실무진 면접

1차 합격자 발표 : 6월 12일 (화)

•활동내용

① 브랜드 홍보 및 지정미션 수행

② 기업 관계사 탐방 및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③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 참여

④ SNS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창구 역할

•활동혜택

① 수료자 전원 해외봉사활동 기회 부여

② 수료자 전원 인턴 또는 신입공채시 우대(활동 우수자 서류전형 면제)

③ 월 활동비 지급, 우수활동 팀 장학금 지급

④ 수료자 전원 수료증 지급 및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⑤ 하나금융그룹 프로모션, 행사 진행 시 우선 참여 혜택 제공

LG디스플레이 디플 16기 모집

•모집대상 : 4년제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모집분야 : 디스플레이, 디자인, 영상

•모집기간 : 5월 9일(월)~6월 11일(월)

•활동기간 : 7월~2019년 1월

•활동내용

① 매월 1회씩 콘텐츠 기획회의의 진행

② LG디스플레이 관련 행사 취재

③ IT트렌드, 디스플레이 관련 SNS 콘텐츠 제작

④ 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

⑤ LG디스플레이 사내 행사 참여

•활동혜택

① 매월 팀 활동비 지급

② 매월 우수 활동 팀&개인 상금 지급

③ 온라인콘텐츠 제작 교육 수강

④ 활동 수료증 지급

기아자동차 하모니원정대 모집

•모집기간 : 05. 17(목)~06. 30(토)

•모집대상 : 국내외 정규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활동기간 : 07. 10(화)~07. 27(금)

•활동내용

①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국내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 및 여행코스 개발

② 대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5명이 한팀이 되어 6박 7일간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

•활동혜택

①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주요 후원기관장·국회의원 표창

② 올 뉴카니발 풀옵션+티맵 활동지원금 200만원

③ 자원봉사 활동인증서(VMS)

④ 여행자보험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강사 모집

•선발분야 : 수업강사

•지원 자격 : 국내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불가), 합숙이 가능한 자

•선발 인원 : 영어 340명, 수학 170명

•활동 기간 : 07. 17(화)~08. 16(목)

•활동 장소 : 부산대학교(부산) 외 타 지역 5곳(임의 배정)

•활동 내용 : 중학교 영어 또는 수학 학습지도(1개 과목 선택 지원)

대학생강사 3명(영어 2명, 수학 1명)이 중학생 10명 내외를 생활 지도

•활동 혜택 : '삼성드림클래스 장학금' 250만원 지급

•지원 방법 : 삼성드림클래스 홈페이지(www.dreamclass.org) 접속

이현희 기자

hyeoneneya@gmail.com

동서대 청년창업한마당 성황리 개최

청년창업 확산과 창업정보 교류



▷사진출처 : KNS뉴스통신

지난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동서대 스튜던트 프라자 3층 중앙홀에서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한정호)이 창업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페스티벌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 간 만남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얻을 기회를 주어 동서대학교에서 뛰어난 창업 인재를 배출해내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동서대 재학생과 창업동아리 학생, 비즈쿨 학생, 지역 내 청년 예비 창업자와 동·남권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 동서대 패밀리기업 수혜기업, 창업아이템 사업화 수행자, 창업 동아리 등 창업관련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키노트 창업스피치,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상담코너로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키노트(chair) 창업스피치에서는 최병희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장이 먼저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주제의 스피치로 페스티벌의 막을 열었다.

다음으로 '창업! 이것이 궁금했다.'를 주제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창업 성공 과정을 들려주며 노하우를 알려주는 패널 토론회 열렸다. 그곳에는 최병희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장, 이정희 시드스파크 대표, 방송에 스캔컴퍼니 대표, 김한별 더디랩 대표, 박태제 킥 스타트 아시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최병희 센터장은 "돈이 없어 창업을 못 하는 시대는 끝났다. 기술 아이템만으로 실패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

는 시대가 오늘날이다. 조그마한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타운 장에서는 동서대 패밀리기업 수혜기업과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사업화 수행자들이 사업아이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스타트업 상담코너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 기술 권리화 등에 대한 상담을 전문 투자자·벤처·창업센터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술창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향후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등 건전한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최병희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장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창업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한정호 동서대 창업지원단장은 "창업교육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화 시키고 그러한 성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성원해 주는 잔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관심하는 바이지만 하지 만, 생활에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더욱 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노력을 계획합니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5월 내내 스튜던트 프라자 3층 중앙홀에서는 청년창업 한마당 페스티벌을 끝낸 후 창업 아이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현희 기자

hyeoneneya@gmail.com

금융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자!

금융권취업을 위한 금융 자격증 추천



▷사진출처 : KEB 하나은행

외환관리사

기업의 환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999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자격시험이다.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환리스크 관리는 물론 외화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외환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격시험은 크게 2단계로 나뉘 운영, 먼

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외환관리사 자격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이에 따른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전문가이다.

자산관리사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제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들 등 고객

국가공인 신용분석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황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이다.

국가공인 여신심사역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시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신용상황 및 사업성분석을 통해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출이율 및 기간의 결정, 대손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과 법률적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이다.

국가공인 국제금융역

금융기관의 국제금융관련 부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파악 및 분석, 예측 등을 통하여 외화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국제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이다.

국가공인 신용위험분석사

금융회사 및 기업신용평가기관 등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신용위험을 측정·관리하는 여신전문가이다.

국가공인 외환 전문역

국가공인 외환 전문역 I 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한다.

국가공인 외환전문역 II 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한다.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준법관련 법규와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이 정한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며 영업점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금융전문가. 은행, 보험, 증권 분야별로 자격이 구분된다.

자금운용역

효율적인 자산운용 전략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으로 해당과정(채권운용전문가과정/주식운용전문가과정)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내외의 소비자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을 상담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해당과정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한다.

보험 계리사

국내외 보험상품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심리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회 환경과 경제실정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수학, 통계학, 재무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적용해 적절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금 을 계산하고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 및 통계분석 업무를 한다. 사망률, 해환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을 평가하고 각종 통계를 분석한다.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 관련 위험성을 분석·평가·진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익을 계산한다.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경영지표를 수립·제시한다. 기타 보험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 AFPK는 한국FPSB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AFPK 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100점 만점 중70점 이상) 3년 이내에 자격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AFPK 자격증을 갖고 나서야 CFP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AFPK는 한국, 호주 등 아시아의 몇 국가 등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CFP의 전 단계 자격증인 셀이고 CFP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다 전문적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인 셀이다.

이현희 기자

hyeoneneya@gmail.com

방송 돋보기 - <백종원의 푸드 트럭> - SBS

■ 청년이여 창업이라는 열정에 도전하라!



▷사진출처 : MBN 포토뉴스

'백종원의 푸드 트럭'은 대한민국 일 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띄며 소개된다. '요식업계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이 푸드 트럭들을 통해 창업과 장사의 비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명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의견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창업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은 8.7%(닐스코리아 제공)로 조금 높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에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EBS 1TV), 나혼자 산다(MBC TV) 등이 있다. 총 22회까지 나왔으며 5달을 진행했다. 현재 중영한 예능이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소자본으로 CEO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푸드 트럭'을 통한 리얼 길바닥 생존 버라이어티이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백 대표의 장사 노하우, 만들어내는 메뉴마다 전 국민 입맛 저격하며 외식업계 미다스 손을 꿈꾸는,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창업자들을 위한 백 대표의 실무선!'이라고 밝혔다. '백종원의 푸드 트럭'의 후

속 작품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프로그램 MC는 김성주와 백종원이며 연출엔 김준수 PD, 이관원 PD, 정우진 PD가 맡았다. 김준수PD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으로는 '웃찾사', 예코 빌리지-즐거운 가, 백종원의 3대 천왕'등 백종원과 인연을 쌓았던 PD이다.

'백종원의 푸드 트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 청년부터 중년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 백종원이 출연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것을 본다면 적응이 안 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쓴소리와 독설을 아끼지 않고 의견을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 칭찬보다 쓴소리와 독설의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백종원의 푸드 트럭'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업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뜻은 백종원이 하는 충고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의 참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치지 않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과 충고를 적극 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1분 핫 영상에서도 나오는 그는 오랜 기간 핫도그를 팔았던 사장이다. 의견을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끝

임없이 노력했다. 그 후 다음 장소에선 준비해온 핫도그를 매진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성공했다는 기쁨과 그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후 그의 핫도그 푸드 트럭 앞은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고 한다. 이때 그와 같이 했던 푸드 트럭 중에서 완전히 판매되지 않은 푸드 트럭은 없었다. '백종원의 푸드 트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무작정 푸드 트럭 창업을 한다는 사람이 늘고, 아무 준비 없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천천히 준비하는 창업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단면만 보고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좋은 점을 꼽자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만약 '백종원의 푸드 트럭'에 지원을 한다, 혹은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이런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백종원의 푸드 트럭'을 보고 창업에 대한 열정을 뽐내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무작정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창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철저한 계획과 실천,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창업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백종원의 푸드 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주원 수습기자
sco04793@gmail.com



이달의 영화—<500일의 썸머>



- 영화 제목 : 500일의 썸머
- 영화 감독 : 마크웰

영화 <500일의 썸머>는 드라마, 코미디, 멜로, 로맨스가 포함된 장르로 "우연은 우주의 이치다"라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순수 청년 '똥'과 "나는 진지하고 싶지 않아!"라며 구속받기 싫어하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자유로운 여자 '썸머'가 만나면서 영화는 진행된다. 2010년 1월 21일에 개봉하였고, 2016년 6월 29일에 재개봉되었다. 영화는 총 95분 동안 상영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500일의 썸머>가 명작이라고 한다. '썸머'가 '똥'의 회사에 새로운 비서로 나타났다 '똥'은 '썸머'를 처음 보는 순간 대책 없이 사랑에

우연인가, 인연인가

빠져들며 단순하게 시작하고 끝나는 이 영화가 왜 명작으로 불리는지는 영화를 다 본 후에야 이해할 수 있다.

영화 초반에 똥이 썸머를 깨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가 운명으로 느꼈던 썸머가 떠나갔기 때문이다. 영화는 시간 순으로 진행되지 않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가는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썸머를 깨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필자는 이 영화를 2번 이상 보았다. 한 번만 보았을 때는 그저 운명을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영화와 같은 예술작품은 두 번 이상 보아야 또 다른 것이 보이듯 두 번 보았을 때는 연인의 세세한 감정 변화와 사이사이에 숨은 수많은 복선들이 보였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꼭 두 번 보길 추천한다.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기에 외국 정서로 보는 연인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

이 영화는 어느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경험을 그린 스토리가 아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고 한 번쯤 일어났던 사건들을 똥이라는 남자와 썸머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영화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번쯤 첫사랑의 아픔을 느껴본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이다.

똥이 썸머를 지켜보며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느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점을 찾아내며 그것을 운명이라고 단정 짓고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똥을 예를 들어 첫사랑의 추억을 돌아보면 썸머는 똥과 비슷한 음악을 듣고 먼저 말을 걸어와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필자가 본 이 영화의 한 줄 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평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정말 좋은 영화. 설득력 있다. 운은 있어도 운명은 없다. 필연적인 결론 같은 건 지구상에 없고, 특별한 뭔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도 않다. 썸머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뿐."라고 한 것이다. 똥이 썸머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방식대로 썸머를 사랑했다. 영화는 온 통 똥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썸머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필자는 영화를 보기 전 운명을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 우연과 인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며 리뷰를 마친다.

지은서 수습기자
eunseo9830@gmail.com

무‘無’의 의미에 삶의 의미를 찾다



무민세대는 '無(없다)+Mean(의미)+세대'의 합성어로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대학 내일 20대연구소가 선정한 2018년 20대 주요 트렌드 키워드 5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늘 경쟁에 놓여있고 매일 새로운 박탈감과 성공에 대한 압박과 감증을 내려놓고 무자극, 무맥락, 무위취식을 찾게 된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에서는 성인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무민세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2%가 스스로를 무민세대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대(47.9%)는 절반 가까이 본인이 무민세대로 응답했으며, 30대 50대 순으로 응답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그 이유는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라는 이유가 60.5%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 '현재 삶에 만족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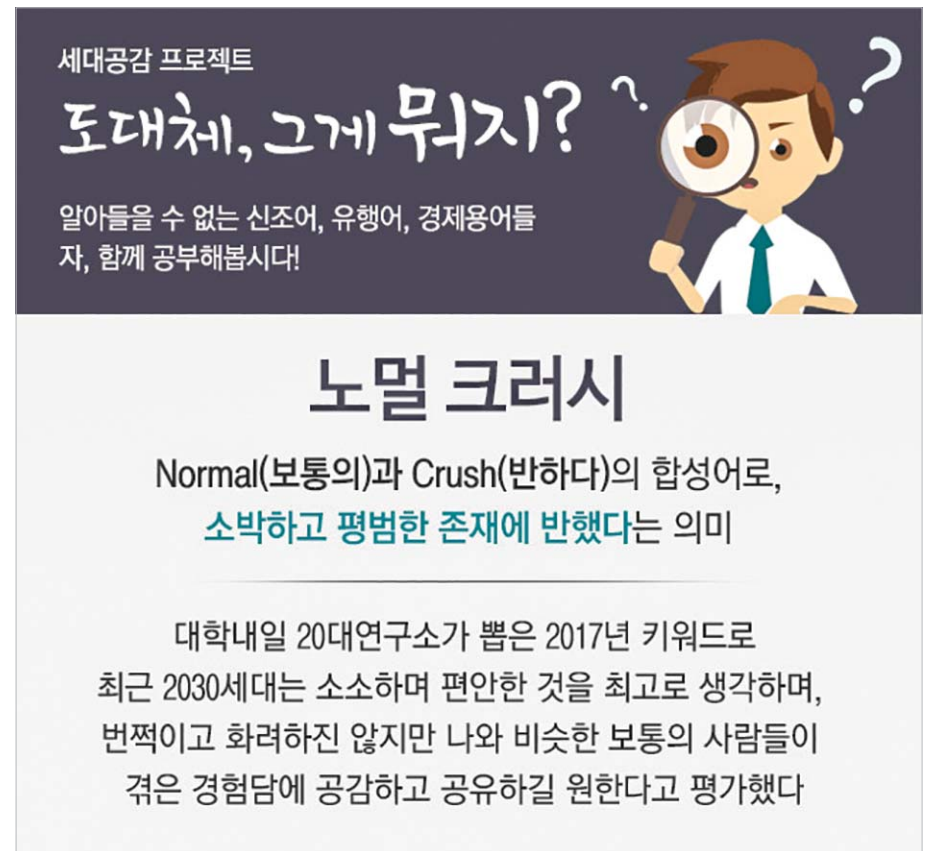
가장 큰 이유인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다는 이유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만 받는 세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20대에 취업난을 겪고, 30대에 겨우 회사에 적응하고 40대는 진급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50대는 체력적인 한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 여유조차 부족하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제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않는 무민 세대가 되어 강박에서 벗어나 것이다.

그렇다면 무민세대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강에서 열리는 '똥 때리기 대회'를 비롯한 ASMR이 인기를 끈 것도 무민세대 때문이다. 그리고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한잔을 시켜두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놓고 나타나는 예로 SNS상에 카페에서 커피한잔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이 만연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무의미한 것에 본인만의 의미를 새긴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마치 유행처럼 짧은 세대들 사이에서 무의미한 것을 찾아다니고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찾게 된다. 아마도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합리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인의 삶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길을 돌려 여유로운 안에서 '나는 지금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며 자기 회면과 같은 합리화 말한다.

무민세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노멀크러시'도 있다. Nomal과 Crush의 신조어이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질린 젊은 세대들이 보통의 것들, 평범한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은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의 기준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소소하지만 확



실히 만족하는 삶을 택한다.

따라서 무민세대와 같이 노멀크러시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네온사인인 있는 거리가 아닌 소박한 골목길을 선호하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며 자신의 취미생활도 운동, 미술, 음악 등 한 가지씩 가지는 것을 추구한다.

방송에서도 똑같이 무민세대와 노멀크러시의 가치관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현상에 공감하고 있다. 감정소모를 하지 않고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컨셉으로 '나 혼자 산다' '효리네 민박' '윤식당' 등 소소한 일상을 다루고 보는 시청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화려한 연예인의 삶에서 벗어나 평범함을 찾아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연예인에게 동경감을 느끼고 공감을 구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 TV 바깥 세상에서 보고 그들의 삶의 소소함에서 그 것이 절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껴 나의 삶에서도 소소함을 하나씩 채워 나간다. 그 방송의 인기가 바로 무민세대와 노멀크러시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은 무민세대와 노멀크러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바쁘게 살아가도 모자라는 세상인데...'라는 말로 젊은이들을 더 바쁘게 하며 감압을 넣는다. 그저 소소한 삶은 나중에 돈으로서 여유를 찾고 난 뒤에야 상관없다는 걱정에서 나온 말뿐이지

▷사진출처 : tong plus

만 그들이 살아온 세상과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엄연히 다르며 그 변화 속에서 사 랑도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들이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대중 사는 것, 그냥 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본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대단히 여기며 매일매일 순간의 소중함을 잃지 않은 채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민세대와 노멀크러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이 행복, 돈이 행복이라는 공식이 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체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성공이 돈을 가져다주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쟁이 만연하는 현대사회에 지친 세대들이 이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답게 걸어가는 것. 소소한 삶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속에서 우리 세대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이현희 기자
hyeoneneaya@gmail.com



축 제·공 연 소 식



신촌물총축제

- 기간 : 2018. 07. 07. (토) ~2018. 07. 08(일)
- 장소 : 신촌 연세로
- 주최 : 무언가



포항국제불빛축제

- 기간 : 2018. 07. 25. (수) ~2018. 07. 29(일)
- 장소 :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 주최 : 포항시



정남진장흥물축제

- 기간 : 2018. 07. 27. (금) ~2018. 08. 02(목)
- 장소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최 : 장흥군



통영한산대첩축제

- 기간 : 2018. 08. 10. (금) ~2018. 08. 14(화)
- 장소 : 문화마당 및 병선마당,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최 : 통영시



제주 허브동산 별빛놀이

- 기간 : 2016. 12. 02(금) ~2017. 12. 31(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 주최 : 제주관광공



통영한산대첩축제

- 기간 : 2018. 08. 10. (금) ~2018. 08. 14. (화)
- 장소 : 문화마당 및 병선마당,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최 : 통영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 기간 : 2018. 06. 20. ~2018. 08. 26
- 장소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장르 : 뮤지컬

올해의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 시리즈 ‘여름’ 편

아직도 여름하면 파란색만이 떠오르나요?



2018년, 팬톤이 선택한 컬러는 ‘울트라 바이올렛’이었다. 6월을 맞이하여 지난봄 편에 이어 이번에는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을 이용한 여름 물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여름과 보라색, 어울리는 듯 어울리지 않는 듯 묘하게 어울리는 두 단어이다. 푸른빛 바탕의 울트라 바이올렛은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 그렇기에 어떤 아이템을 쓰냐에 따라서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는 ‘신비로운, 고귀한, 예술적인’과 같은 좋은 수식어는 모두 따라붙는 색이지만 문제는 좀처럼 소화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보라색은 여성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컬러로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여성들이 개성 강한 스타일을 연출하기에 좋다. 그렇다고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색상은 아니다. 남성들 또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특별한 색상을 가지고 무심한 듯 무심하지 않은 패션의 완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남성과 여성, 성별은 다르지만, 패션에 대한 열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일하다.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은 작은 아이템부터 색상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큰 아이템까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이번 여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2018년의 울트라 바이올렛의 아이템은 어떤 새로운 모습일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사진출처 : 네이버 SNRD 공식 판매처

레인 부츠

여름만 되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장마.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습하고 끈적한 날씨에 기분은 우울해지고 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신발과 양말까지 젖어버린다면 하루 전체가 들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레인부츠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만의 패션이었던 레인부츠는 많은 셀럽의 사랑을 받으며 일상적인 생활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인의 레인부츠가 등장했다. 넓은 선택의 폭으로 레인부츠 하나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굵은 종아리가 고민인 이들에게는 무릎까지 오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 제격이다. 종아리 전체를 가려줘 다리가 날씬해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다. 작은 키로 인한 짧은 다리가 고민이라면, 종아리 절반 정도까지 오는 하프 부츠를 선택하자. 하프 부츠를 신으면 위아래로 시선을 길게 유도할 수 있어 다리가 길어 보인다. 비 때문에 우울해지는 기분을 전환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면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을 가진 레인부츠는 어떨까? 양말을 보호해주는 레인부츠 덕에 오히려 물웅덩이를 밟아 보고만 싶어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 오는 날에 실용성도 살리고 패션도 살릴 수 있는 레인부츠. 이번 여름에는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을 가진 레인부츠를 통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적당히 무게감 있는 비 오는 날의 코디를 완성시켜보자.

선글라스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패션아이템은 바로 선글라스다. 창과 방패, 자외선은 창이고, 선글라스는 방패다. 자외선은 여름에 더 매섭고 위협적이다. 강력한 햇빛이나 반사광선으로부터의 자외선 차단은 선글라스의 제일 중요한 임무다. 뜨거운 햇볕을 동반하는 여름철에 선글라스는 여름철의 ‘머스트해브(Must Have)’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남들과 달리 좀 더 개성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의 선글라스를 착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같은 선글라스라고 해도 프레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는 자신의 얼굴형에 따라 고르는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계란형의 얼굴형은 어떤 것을 써도 모두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선글라스 위 테가 직선인 것을 추천한다. 턱이 긴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테가 위에만 있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 시선을 분산시켜 턱 턱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긴 사람들은 큰 렌즈의 선글라스를 추천한다. 큰 렌즈를 쓰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비교적 얼굴이 각진 사람들은 각진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둥근 렌즈의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 얼굴형에 맞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날의 분위기에 맞춰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선글라스 특유의 멋과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의 세련미, 개성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 합쳐져 여름이라는 계절과 맞는 적절한 패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샌들

무더운 태양, 습해지는 날씨를 보며 땀이 흐르는 계절, 여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편안함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가진 샌들은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슬슬 샌들을 장바구니에 넣게 되는 요즘!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에 ‘어떤 것을 살까?’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바다 혹은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가 빠질 수 없다. 여름휴가 혹은 방향을 맞이하여 물놀이를 떠날 때는 무거운 신발보다는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게 된다. 바로 ‘샌들’처럼 말이다. 샌들의 꽃은 매끈하고 건강한 발 관리다. 샌들이나 높은 굽의 구두를 자주 신다 보면 발뒤꿈치에 굳은살과 각질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특별한 노력을 가하거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발 관리를 할 수 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불린 다음 스크럽을 해 주면 된다. 이 외에도 깨끗이 씻어 농약을 제거한 레몬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을 따뜻한 물에 넣어 우려낸 다음 발을 담그면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샌들은 다양한 코디에 두루 매치하기에 좋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추천한다. 또 매일같이 신을 수 있으려면 굽의 높이, 굽의 디자인, 발등 가죽끈의 넓이 등이 안정적인 것이 좋다.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에도 울트라바이올렛 컬러의 샌들을 매치하면 보라색이 주는 부담을 세련된 패션으로 살릴 수 있다. 여기에 사소한 포인트가 되는 페디큐어까지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팔찌

옷이나 선글라스와 같은 아이템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팔찌를 추천한다. 반팔 티 혹은 민소매 등 맨살이 드러나는 패션은 참 예쁘고 시원하다. 하지만 팔을 보면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시점에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의 팔찌는 적절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평범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패션이 끝난다면 사소한 포인트에 주목하자. 팔찌는 사소하지만, 그 사람의 패션 감각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울트라 바이올렛 색상의 팔찌를 이용해보자. 보석을 활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원석을 활용해 단순하고 깔끔한 느낌을 낼 수도 있다. 이니셜로 장식된 팔찌는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징 있는 아이템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해 팔찌를 고르기 힘들다면 팔찌를 고를 수 있는 다른 기준도 존재한다. 바로 색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팔찌이다. 선행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부 팔찌와 직접 만들어 더욱 의미가 있는 DIY 팔찌 등이 그 예이다. 커플 반지와 커플 티 등 흔한 커플 아이템이 지겨운 이들에게는 새로운 커플템으로 팔찌를 추천한다. 요즘에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팔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팔찌를 만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커플들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1~2시간 정도의 짧은 제작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팔찌 만들기는 이색 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

윤다는 기자, 김윤창 수습기자
yoondasol73@gmail.com



▷사진출처 : 네이버쇼핀 오픈마켓



▷사진출처 : 네이버 쇼핀



▷사진출처 : CHICVIE



막 시작한 것 같은 1학기가 지나갔다. 기말고사가 남아있지만, 기말고사 뒤의 방학이 너무 기대해서 사실 기말고사 준비가 잘되지 않는다. 대학에 와서 첫 학기의 끝자락에서 방학을 기대하는 나를 보다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미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친구, 토익점수를 올리겠다는 친구,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친구까지 다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데 나 혼자 너무 놀 생각이 가득한 것 아닐까? 어쩔 때 잘 많이 들었던 '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학기 중에 무엇인가 몰두해서 해 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공부의 흥미가 없었고 스펙은 아직 1학년인 나에게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다. 대학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바쁘게 보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다. 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드는 생각 또한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군대 등 평소 애 들지 않던 생각들이 이상하게도 새벽 공기를 마실 때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진로의 방향을 어디로 생각하는가,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혼자서 생각에 빠지

생각을 하는 여름방학

송민준(영어학과·1)

게 된다.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본 적이 많지 않았던 나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혼자서 고민에 빠져서 걸어 다니고 생각에 너무 열중해서 가끔 집에 가는 방향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걷는 나 자신을 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미래 혹은 진로 등의 고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책상에 책을 펴서 공부하다가 잠시 다른 고민에 빠지는 일이 많았다. 그 일이 기억나면서 든 생각은 나는 방학 때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민을 위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잡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무의식 중에서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 그걸 위한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추천한다. 그런데 그 여행이 정말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면서 관광지를 보러 다니는 것보다 낯선 장소를 하염없이 걸어 다니고 그 사이에 보이는 풍경들을 보고 뒤에 있을 약속, 해야 할 일이 없는 나날들을 잠시나마 느껴보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가는 걸 추천한다.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 무조건 힐링이 되는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낯선 곳으로 떠나보자.

평소에 복잡하다고 미루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를 느끼면서 생각을 해보자.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여유를 만끽하며 평소에 미루었던 생각을 해보고 그곳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평소 같으면 오글거린다는 감성에 젖어서 장소를 가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감성에 젖어서 하는 허황되고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보면 복잡하다고 미루었던 그 생각, 고민에 대한 답이 보일 것이다. 여름방학은 참 깊게 느껴지는 방학이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시간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할 시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이다. 꼭 유명 여행지, 혹은 도시가 아니어도 좋다. 나에게 있어서 낯선 곳을 가보자.

낯선 장소가 주는 낯선 공기가 주는 느낌 속에서 여유를 찾고 그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 여름방학에 큰 계획이 없다면 앞서 말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죽비소리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

김세진(간호학과·1)

흔히 여름방학은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긴 시간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학생,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학생, 계곡과 바다를 놀러 가려는 학생, TOEIC, TOEFL, TEPS 등 공인영어성적을 올리려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볼 수 있다. 본디 방학이라는 의미는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수님과 학생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기간이지만 오늘날의 방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3학년 4학년 심지어는 1학년 신입생도 영어 학원에 다니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는커녕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어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를 보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방학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 방학식이 되는데,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 방학 잘 보내라는 말과 함께 대학 동기들과 인사를 한다. 물론 방학 중에 동기들과 따로 만나 학교 밖에서의 추억을 쌓고 동기들과의 우애를 다지기도 한다. 가끔 연락이 안 되는 대학 동기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연락하며 꾸준히 친목을 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법,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각자 자기의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을 볼 수 있다. 집이 멀어 주말에도 쉽사리 집에

까지 못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얼굴이 더욱 반가울 것이다. 또 이때까지 각자의 시간으로 만나지 못했던 고향 친구들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여름방학이란 시간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다. 25살 나이에 꿈을 가지고 늦게 1학년으로 입학한 나에게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은 부족한 나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걱정은 많아지며 군대를 갔다 온 남자 학우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바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보라고 나는 권유하고 싶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은 성대하게 짜놓곤 하지만 정작 목표를 이룬 계획은 하나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여름방학에 임했으면 한다. 또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에게는 더욱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여름 방학 때 해외에 가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려고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 혹은 친구와 가는 것이 아닌 혼자 가는 것이라면 낯선 해외에 가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으며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알아야 하며 또 두려운 마음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두렵거나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가 할 수 있는 다이프, ASP, SA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어, 학년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든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꼭 해외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를 잘 찾아 알차게 방학을 보냈으면 한다.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1학년은 설레고 무엇을 먼저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르바이트일 것이다. 학교와 집과는 다른 환경에서 용돈을 스스로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학교와는 다른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친구는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니면 2학기 때 쓸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사회경험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며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름방학이라는 의미는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달의 명언

흔욕 님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 찾는 데 있다.
— 워싱턴

목회칼럼



유 신 신 교목실장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언제부터인가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좋은 것과 싫은 것으로 구분하는 습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엄지 척(?)으로 좋다는 표현을 하며 디스(dislike)라고 하여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언어들이 드러내는 시대 풍조를 쉽게 알 수 있듯이 세상을 호(好), 불호(不好)로 보면서 존경심이나 존경의 대상이 없어진 비극이 초래하고 만 것이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주의와 다원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탈권위주의로 권위 부재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실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내면에는 존경심이 없어지고 의무적(義務的)이고 경제적인 관계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현상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어드넷 우리는 존경할 만한 어른 없다는 안타까운 절규를 하게 하고 말았다. 물론 존경받을 만한 인물과 영웅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존경받을 인물과 영웅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경이라는 단어 대신해서 '좋아한다'로 바뀌고 존경보다는 인기로 대체해 버리게 된 것이다. 존경받지 못해도 인기가 있으면 살아남고 잘 나가는 인물로 대접받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부모를 존경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의 도리로서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고 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교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어떤 부모와 어떤 스승이라고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호불호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도 존경하라고 하신다. 사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서로 존경하라는 말은 생소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인권이라는 사회 시스템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다 격이 높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마음가짐을 존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더 나아가서 어린이 같은 자는 자에게도 존경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에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존경하여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경을 표한 것이라고 하신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이나 이 땅에서 디스로 왕따 당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을 존경을 표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축복이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나 풍조라고 핑계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심으로 존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하게 되고 인간들끼리 서로 존경도 사랑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부모나 스승 그리고 약자와 소자를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 1:6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의 존경하는 것이 인맥보다도 실력보다도 인기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사설

통일에 붙여진 물음표

전 국민이 열광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라는 점 이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선수들의 경기 모습 못지않게 시선을 끌었던 북한과워급 대표단의 행보가 관심 포인드로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뿐만이 아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표단의 남한 방문은 한반도 위기 해결의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정상 차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 되었다. 아슬아슬한 불안감과 긴장감의 연속이었던 한반도 정세의 흐름은 이제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듯했다.

남북은 남아 있는 이산가족을 위해, 한반도 땅을 밟고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북평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의 교류가 가짜 상봉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학술 교류, 경제, 정치 등까지 국가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 바탕에는 값은 치르는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경제 규모는 탄탄하다.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무엇보다도 조상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함쳐져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 의미만큼 더욱 값진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에 방문할 때면 일본인, 혹은 중국인이냐는 오해를 샀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것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류'이다. 한류를 통해 우리의 대중문화는 널리 퍼지고 있다. 그 유명세를 증명하듯 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부쩍 늘었다. 많은 것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그중 하나로 '평화 통일'을 꼽을 수 있다. 분단된 국도가 통일되어 있으면 광복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막중하다. 팍 막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기초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 표준시를 남한과 '시간 통일'한다는 사소한 변화에도 국민들은 열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면서 자랐던 우리의 열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순조로운 것만 같았던 남북 사이는 예견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에 의해 빠르게 거리가 시작한다. 당연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까지 문제 삼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의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예상 밖이다. 국제사회와 조화, 남북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분위기에 균열이 생길까 걱정만 하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다. 대화의 재개는 빠른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미국에 충실히 전달하는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미국 역시 확실한 체제 보장 등 북한이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비핵화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억지스러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요구사항에 대한 대화를 이끄는 합리적 자세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기에 서로를 이해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한 걸음 물러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풀어가는 자세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은 한반도 뿐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통일은 동전처럼 장단점이라는 양면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와 같다. 평화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통일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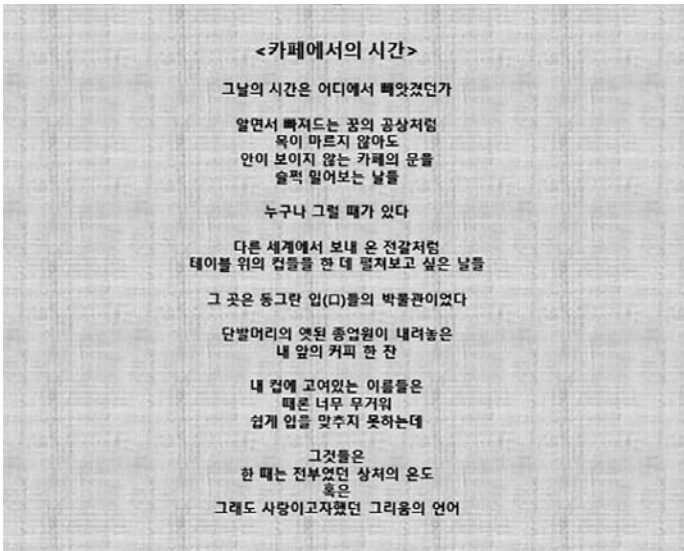
동서만평

글·그림 최인아



■ 인터뷰1-신인 시인 영상문학전공 김민서 학생

‘한국문학예술 신인상 수상! 글을 잘 쓰고 싶은 학생이라면 모두 주목!’



▶김민서 학생의 ‘카페에서의 시간’ 중.

동서대학교에서 시인이 탄생했다.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보는 가까운 존재이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인, 한국문학예술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김민서 학생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영상문학 전공 4학년 김민서라고 합니다.

Q.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저는 시를 쓴다고 보다 먼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글을 쓰고자하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 먹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나가게 된 단편 영화제에서 시나리오를 맡았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나의 이름이 작가라는 역할로 엔딩크레딧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사람들이 밤을 새고 굶어가면서 예술을 하게 되는 이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잘 하는 것이 없었던 학생이에요. 밝은 성격으로 잘 없는 것 이외에 단 어느 것에도 두각을 보이지 못해, 때로는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 바로 글이었단 것 같습니다. 글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소설을 주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주제를 담아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실 대학교 소설창작 전공으로 준비를 했던 터라, 소설은 정말 고3 때부터 재수 시절때까지 죽도록 썼어요. 농담이지만 사실 시를 쓰게 된 이유도 질려서가 아닐까 할 정도로요. 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 보는게 어떻게 싶었어요. 굳이 새로운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을 넣고 그 인물들의 입을 빌려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언어로 목소리를 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일종의 도전으로 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 점이 가장 매력있더라구요, 시를 읽는 것이 아닌 쓰는 점으로 보이네요.

Q. 시인이 된 과정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일단 제가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 1등 공신은 저희 과 연구회인 <문독, 글을 읽다>가 아닐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당선 된 시 다섯 편 중 네 편이 2017 학술제를 위한 문집을 준비하며 쓴 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시, 수필을 쓰는 회원들이 다 나눠져있었지만 시를 네 편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구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공간과 사물이라는 콘셉트로 ‘것, 곳’이라는 모티브를 내놓았습니다. 그 또한 방향성을 잡아가기에 도움이 되었던 방식이었죠. 물론 처음 쓴 시는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우리 <문독, 글을 읽다> 회원들의 끝 없는 피드백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 시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 받지 못하는 형편 없는 일기들로 전락했음지도 모릅니다.

Q. 가장 좋아하는 시인 또는 시가 있나요?

A. 2013년부터 제 인생에 문학적 뿌리를 깊숙하게 밀어 넣어준 이병률 시인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소재를 먼 곳에서 잡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손바닥, 혹은 손등, 그 손등이 쓸리며 내는 소리, 그 손이 잡는 것 가락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해요.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삶은 사람의 오타’라는 말이에요. 이 짧은 글에서 이의 사상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사람의 삶, 혹은 그들이 내는 사람의 숨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꼽자면 시집 <눈사람 여관>에 나오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모든 열쇠의 방향은 오른쪽/열리지 않으면 반대쪽//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받아먹어야 한다면/불가능한 것을 믿자/우리는 인생이 하나가 아니라고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오른쪽으로만 돌립니다. 오른쪽이 열리지 않으면 정답은 반대쪽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시’ 자체를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뜬 구름 잡는 것 같아도, 조금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불가능성이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시처럼 말입니다.

Q.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본인의 시가 있을까요?

A.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카

페에서의 시간>입니다. 컵의 모양을 보고 하나의 입(口) 같더라는 발상에서 시작한 시인데요. 이 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세 들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빛이 되듯이요. 그래서 시 본문 중 사람에게 ‘세들어산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때론 신세를 지기도 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쉽게 입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은 죄를 짓고 벌을 들어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들을 돌아해보면, 나의 행동이 그에게 상처가 아니었을까 다시 곰씹어볼 수 있게 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 글을 잘 쓰는 본인만의 팁!

A.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쓸 만큼 부지런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뇌리를 때리는 순간 순간들은 어떻게든 외면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중에 어디든 기록을 합니다. 이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열매를 키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두 번째, 때론 고독해라, 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도 그랬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이유가 된다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시간 만큼 자신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하다고 마냥 나가서 놀거나 이불 덮고 잠을 청하지 말고, 연필을 드세요. 그렇게 나오는 나와의 대화는 어떠한 독백보다 힘이 있습니다.

Q. 동서대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4년간 학과 생활도 하고 교내 근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 중 단 한 명도 제가 배우지 않을 점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도 이렇게 시인이라는 파란만장한 수석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결국 행복을 향한 것일지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ung0128@gmail.com

■ 인터뷰2-LINC 사업단 조대수 단장

폭 넓은 경험을 원한다? 동서대 LINC+사업단을 주목하라!



▶조대수 LINC사업단 단장.

학기가 마무리되는 6월을 맞아 동서대 신문사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LINC 사업단 조대수 사업단장을 인터뷰했다. LINC사업단은 뉴 밀레니엄과 8층에 위치하고 있다.

Q. 우선 LINC 사업단이 무엇인지 간단 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LINC+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창업 확대 및 대학과 산업,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은 정부로부터 5년 동안 220억 원을 지원받으며 산학기반, 산학교육, 산학연계 분야 9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LINC 사업단이 학교에서 하는 전반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요?

A. LINC+사업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한층 심화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갖춰야 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 제도를 기획하고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타 대학에도 LINC+사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은 학교 안에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A. ‘2017 산학협력 EXPO’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클래스셀링★(Class Selling★)’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래스셀링★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대학이 개설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에서 구매하는 ‘주문식 판매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학생들은 현장감 있는 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사업단에 자주 찾아오나요?

A.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부가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로 캡스



▶조대수 사업단장이 부산국제연극제 공동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고, 한 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업단에서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이나 행사 홍보 포스터를 보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Q. LINC+사업단의 비전이 ‘특성화 분야 세계적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대학’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산학협력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산학협력’이란 학계와 산업계의 상호협력으로, 대학에서는 산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산업체에서는 대학의 진보된 이론을 도입하여 생산성 증대 및 기술의 혁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여 산업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의 학업 이외에도 창업,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중 가장 학생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개의 프로그램은 전국의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캡스톤디자인은 이번 학기에만 3,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우리 학교 내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동적인 이론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실무능력을 기르고,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깁잡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직접 알 수 있고 남은 학교생활 동안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과 맞지 않는 기업, 업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LINC+사업단의 창업동아리는 기업이 정신, 창업문화 경험, 도전 정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개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Q.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좋게 들러올 때 어떤 기분인가요?

A.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칭찬과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듯이 LINC+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칭찬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여금 어떻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게 하죠.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많은 학생들이 사업부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어려워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미숙한 게 당연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됩니다.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단의 담당 선생님들이 몇몇 학생들을 챙겨주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한 번 더 서류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정을 미리 겪는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서 수습기자
mcdbsckd@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바나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체적인 조상이자 정신적인 조상이다.

신이 이교 도시 우르에 살던 그를 불러 가나안으로 가서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고 명한다. 고향을 나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유일신을 섬기게 된다.

처음에는 신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듯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다. 실의에 빠진 사라는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 아시마엘을 낳게 한다. 그러나 이시마엘은 신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다. 신은 세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사라가 그 말을 엿듣고서 믿지 못해 웃는 데 신이 그것을 눈치챈다. 과연 그 예언은 실현되었나. 얼마 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는다. 이삭을 낳을 무렵 사라는 나이가 아흔이었고, 아브라함은 백 살이었다. 아 래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살펴보자.

‘무리(영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란 뜻.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

지’란 뜻의 ‘아브람.’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창 11: 28-31), 데라의 아들이며 나홀과 하란의 형제요, 이삭의 아버지. 아내는 사라(창 11: 26-27)며, 후처로는 그두라(창 25: 1), 첩으로는 하갈을 두었다(창 16: 1). 후처에게서 시므라,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얻었고(창 25: 2), 첩에게서 이시마엘을 얻었다(창 16: 15).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약속(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얻고 복이 될 것, 창 12: 1-3)만을 믿고(히 11: 8)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창 12: 4-9)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창 15, 17-18장).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전한 세 천사는 악의 도시 소돔의 사정을 살펴보러 간다면서 알려진 대로 악이 들끓고 있다면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유명한 ‘거레’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신에게 만악 소돔에 의인들이 몇 명 있어도 도시를 파괴하진냐고 묻는다. 알아

본 결과 소돔에는 의인이라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뿐이었다. 천사들의 권유로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파멸을 앞둔 소돔을 탈출한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은 아래 성경에서 확인해보자.

거할 땅(창 12: 1). 큰 민족(창 12: 2). 창대한 이름(창 12: 2). 복의 근원이 될 것(창 12: 2). 축복과 저주의 증개자(창 12: 3; 22: 18). 자손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창 12: 7; 13: 14-17; 15: 18-21; 17: 8). 자손이 번성할 것(창 13: 16). 하나님께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심(창 15: 1). 아브라함의 품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임(창 15: 2-4). 못 별처럼 많은 자손(창 15: 5; 22: 17). 자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 되어 4백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나 거기서 구원할 것임(창 15: 13-16). 장수(長壽)와 평안한 죽음(창 15: 15). 심히 번성케 될(창 17: 2; 22: 17).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체결(창 17: 2).

4, 7). 그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 체결(창 17: 7).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에 되실 것임(창 17: 7-8). 열국의 아버가 될 것임(창 17: 5-6).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창 17: 16-21; 21: 12). 소돔 멸망과 관련한 약속(창 18: 26-32). 그 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임(창 22: 18).

아브라함은 신약성서에 70번 나오는 데, 모세를 제위하면 구약성서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명되는 인물이다. 예수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비유를 말했다(누가복음 16: 22).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천국에 있다고 믿었으므로 천국에 가는 것은 곧 위대한 아브라함의 곁에 가는 것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천국과 동의어가 되었고 찬송가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ung0128@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제2회 무형유산 손수제작물(UCC)영상 공모전
- 공모분야: 영상/UCC
- 공모주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
- 공모기간: 2018. 6. 18(월) ~ 2018. 7. 31(화)



- LG디스플레이 디폴 16기 모집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 모집기간: 2018년 5월 9일(월) ~ 6월 11일(월) 지정
- 활동기간: 2018년 7월 ~ 2019년 1월(7개월간)



- 제2회 JTI 휴대용 재떨이 디자인 공모전
- 공모분야: 디자인
- 공모주제: JTI 코리아의 배려하는 휴먼 문화와 매너의 상징인 휴대용 재떨이 확산



- 제1회 한전 태양광발전 설비지원 사업 UCC 공모전
- 공모분야: 영상, UCC
- 공모주제: 한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UCC 영상(소재: 농어촌상생,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 제2회 한화호텔&리조트 FC 글로벌 식문화 체험 공모전
- 공모분야: 제출 작품 1부(PPT+PDF)와 일: 20장 내외, 참고자료 첨부, 체험 인증사진 필수)



- 한국도자기디자인 공모전
- 공모분야: 디자인
- 공모기간: 2018. 05. 15(화) ~ 06. 30(토)
- 공모주제: 한국도자기에서 주취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세트를 위한 슬로우 푸드와 어울리는 패턴디자인



- 제2회 파프리카 사진콘테스트
- 공모분야: 사진
- 기간 및 일정: 2018년 5월 10일 ~ 8월 31일



- 행복더하기 UCC&사진 전국 공모전
- 공모분야: 사진/UCC
- 공모기간: 2018. 6. 1(금) ~ 6. 15(금)
- 공모주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가족에 관련된 모든 주제



- 제2회 대한민국 자폐성장애 이해 향상 UCC 공모전
- 공모주제: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수 창작 영상
- 공모기간: 2018년 6월 1일 ~ 6월 30일



- 제1회 국립영천호국원 일러스트 공모전
- 공모분야: 일러스트/디자인
- 공모기간: 2018. 6. 1(금) ~ 7. 31(화), 2개월 간
- 공모주제: 국립영천호국원의 이미지를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



- 2018 에코톤 환경ICT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분야: 광고/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18. 05. 08 ~ 2018. 06. 18
- 주제: 눈, 코, 귀, 입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제6회 항공문화상
- 공모분야: 체험기/사용기, 문학/시나리오, 공모전
- 공모기간: 2018. 04. 16 ~ 2018. 06. 30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여 :

름 :

방 :

학 :



이번 주제는 6월 종강 일에 맞춰 ‘여름방학’이다.
학우들의 센스 넘치는 N행시를 기대해 본다.

예시)

여 : 여름이 왔다!

름 : 넘(름)한 자태를 뽐낼 때가 왔다!

방 : 방구석과

학 : 학교에서 벗어나 물놀이를 하러가자!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
- 확변,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6월 22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6월 25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